

오퍼레이설(Overijssel)주 총대단의 견해서
작성 과정 : 시벨리우스 일지에 포함된 단서를
중심으로

홍주현

(새에덴교회, 연구목사,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본론
- III. 결론

[초록]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9일까지, 여섯 달 반에 걸쳐 진행된 도르트 총회는 네 개의 기간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총회 중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그 상황에 맞게 총회는 적절한 진행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여 그것을 적용해 나갔다. 그러나 비록 다양하기는 하지만 총회의 공식 회의록과 더불어 일부 개인 총대들이 남겨놓은 문서들을 통해 이러한 총회의 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총회 결의의 근간이 되었던 각 총대단의 견해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각 총대단이 총회에 제출하였던 견해서를 어떻게 작성하였을지는 추론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일부 자료들이 총대단이 견해서를 작성한 의사 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한 신빙성 있는 추론의 근거가 된다. 시벨리우스의 일지에는 총회 각 회기의 기록과 함께 여러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와 그가 속해 있던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후자, 즉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와 총대단의 견해가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과 방식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첫째로, 어떤 한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와 동일한 안건에 대한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총대단의 의사 결정 방식이 각 총대들의 견해를 종합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해준다. 또한 둘째로, 시벨리우스 일지에 존재하는 일부 자료에는 그것이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였다가 총대단 전체를 대변하는 견해로 제목과 내용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된다. 이는 총대단이 때로는 한 개인 총대의 견해를 총대단 전체 견해를 대표하는 견해로 채택하여 그것을 총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추론하게 해준다.

키워드: 도르트 총회, 도르트 신경, 도르트 총회의 진행 방식, 도르트 총회 총대단의 진행 방식, 시벨리우스의 일지,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

논문투고일 2023.01.17. / 심사완료일 2023.02.21. / 게재확정일 2023.03.02.

1. 들어가는 말

도르트 총회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도르트 신경 및 총회에 제기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셀더하우스(Herman Selderhuis)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총회의 오전 회기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하였고, 오후에는 4시, 혹은 6시에 회의를 진행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때로는 토요일에 모이기도 하였다. 또한 회의는 처음에는 대부분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청중이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였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을 다룰 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항론평파 추방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회기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심 회기 이후 회기(Post-Acta Session)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¹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총회의 회의 절차 및 의사 결정 과정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인용문이 담아내지 못한 총회의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항상 하루에 두 차례, 오전 회기와 오후 회기로 나누어 총회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차례의 회기만 진행되기도 하였고, 오전 시간은 각 총대단을 위한 논의 시간으로 할애하고 오후에만 정식 회기가 진행되었던 기간도 있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때는 일정 기간 총회를 휴회하기도 하였다. 처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주어진 안건에 따라서 총회의 회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 본 논문은 필자의 논문, “도르트 총회 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시벨리우스의 일지”에서 시벨리우스 일지의 특징을 거론하며 간략히 소개하였던 내용을 확장하고 보완한 글임을 밝힌다. 홍주현, “도르트 총회 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시벨리우스의 일지,” 『개혁논총』 56 (2021), 265-267.

1 Herman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nae 1(1618-1619)*, eds.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2015), XXV. (이하 ADSND) ADSND 시리즈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홍주현, “도르트 총회 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시벨리우스의 일지,” 242. 각주 7.

이렇게 처한 상황과 주어진 안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도르트 총회의 진행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은 총회의 회의록을 통해, 그리고 도르트 총회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문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² 그러므로 도르트 총회의 진행 절차 및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도르트 총회 결의의 근간이 된 각 총대단이 제출한 견해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각 총대단이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총회에 제출할 견해서를 작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도르트 신경 작성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총회는 총회에 상정된 어떤 하나의 안건에 관해 결의할 때, 먼저 총회에 참석하였던 19개 총대단³으로 그 안건에 대한 각자의 견해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 견해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각 총대단이 총회에

2 도르트 총회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는 먼저 도르트 총회에 대한 세 개의 회의록에 있다. 도르트 총회가 끝난 직후 네덜란드 의회에 의해 승인된 회의록 원본(Acta Authentica)과 그것을 수정하여 1620년에 정식으로 출판된 회의록 출판본, 그리고 회의록 원본을 축약해 만든 회의록 축약본(Acta Contracta)이 그것이다. 그리고 공식 회의록이 반향론파, 혹은 개혁파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라면, 향론파의 입장에서 기술된 회의록이 있다. 또한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총대들이 개인적으로 총회의 역사를 기록한 개인 문서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도르트 총회의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도르트 총회 세 개의 회의록은 ADSND 제1권에 포함되어 있고, 향론파에 의해 작성된 총회의 역사는 다음을 참고하라. *Acta et Scripta Synodalia Dordracena Ministrorum Remonstrantium in Foederato Belgio* (Harderwijk, 1620). 그리고 총회의 역사를 기록한 개인 저술로는 존 헤일즈(John Hales)의 편지, 트론친(Theodore Tronchin)의 개인 저술, 사무엘 워드(Samuel Ward)의 개인 저술, 헤인기우스(Theodore Heyngius)의 개인 저술, 그리고 시벨리우스(Caspar Sibelius)의 개인 저술 등이 있다. 세 개의 회의록과 향론파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 그리고 총회의 역사를 기록한 개인 저술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그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홍주현, “도르트 총회 연구의 새로운 전향과 시벨리우스의 일지,” 247-255.

3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총대단의 수는 총 19개였으며, 그 구성은 8개의 해외 총대단, 네덜란드 각 주를 대표하는 9개의 네덜란드 총대단,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Walloon church) 총대단, 그리고 5명의 네덜란드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총대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교회 총대단과 더불어 전체 회의의 진행을 돕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결의 사항이 있을 시 네덜란드 의회(the States General)를 대신하여 판단을 내리거나 네덜란드 의회가 비준한 결정을 전달하는 18명으로 구성된 정치 총대단도 총회에 파견되어 참석하였다.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교회 총대단 및 정치 총대단의 명단과 그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The Participants at the Synod of Dordt,” in *ADSND 1(1618-1619)*, LXIII-CVII.

제출한 문서는 도르트 신경 작성을 위한 견해서⁴ 이외에도 수없이 많으며, 그러한 견해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 총대단은 도르트 총회 기간 중 수많은 자체 모임을 하였고, 그 모임에서 총대단 각자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각 총대단의 견해서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고, 그에 관해 연구된 바도 전혀 없다.

사실상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총대단이 어떤 의사 과정을 거쳐서 총회에 제출할 자신들의 견해서를 작성하였는가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존재한다.⁵ 그러므로 이 글은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나타난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각 총대단, 혹은 모든 총대단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시벨리우스가 속한 오퍼레이של 주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도르트 총회의 진행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4 도르트 신경 작성을 위해 각 총대단이 제출한 견해서(iudicia)는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회의록 본문에 기록되지 못하고 부록으로 회의록 뒷부분에 첨부되었다. 해외 총대단의 견해서는 제2부에, 네덜란드 총대단의 견해서는 제3부에 항목별로, 그리고 총대단의 정치적 서열 순서에 따라 첨부가 되었다. ADSDN 시리즈는 제5권에 이 견해서를 포함하여 출판할 예정이다.

5 Casparus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bundel aantekeningen in het Latijn en Nederlands betreffende de Nationale Synode te Dordrecht, opgesteld en verzameld door Caspar Sibelius, predikant te Deventer en afgevaardigde van de Overijsselse Synode te Vollenhove naar de Nationale Synode; met bijdragen van anderen over de gevoerde discussies, met name over de Canones, de toespraken van de geciteerde Remonstranten, uitspraken van verschillende deputaten over de Remonstrantse standpunten enz," MS 1113 (photocopy), Stadsarchief of Dordrecht, Dordrecht. 시벨리우스의 일지는 도르트레흐트시 문서 보관소 홈페이지, <https://www.regionaalarchiefdordrecht.nl/>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일지의 저자인 시벨리우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일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홍주현, "도르트 총회 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시벨리우스의 일지," 255-269.

II. 본론

도르트 총회는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9일까지 전체 180번의 회기로 진행되었던,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한 칼빈주의 국제총회이다.⁶ 약 여섯 달 반 동안 지속된 총회의 전체 기간은 다시 네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간은 향론파가 소환되어 총회에 도착하기 이전에 네덜란드 교회의 다섯 가지 안건을 다루었던 ‘중심 회기 이전 회기(Pro-Acta session)’ 기간이다. 그리고 중심 회기는 다시 두 개의 기간으로 나뉘는데, 향론파가 소환된 이후 그들과 함께했던 ‘향론파와의 절차적 논쟁(Procedural Debates with the Remonstrants)’ 기간과 향론파가 총회로부터 추방된 이후 도르트 신경을 작성하기까지의 ‘향론파의 주장에 대한 응답서 작성(Preparing a Response to the Remonstrants)’ 기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은 도르트 신경이 공표되고 해외 총대단이 돌아간 이후 네덜란드 국내 총대들만으로 교회법 등 네덜란드 교회의 안건을 다루었던 ‘중심 회기 이후 회기(Post-Acta session)’ 기간이다.⁷

그러나 총회 자체가 이렇게 기간을 넷으로 구분하여 총회를 진행해 나갔던 것은 아니다. 총회는 총회가 진행되면서 벌어졌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 진행 방식을 맞추어 나갔을 뿐, 앞서 구분한 도르트 총회의 네 기간은 후대의 사람들이 총회가 맞추어 나갔던 진행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총회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먼저 그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을 논의하였고, 가장 적합한 절차가 결의된 후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므로 총회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과정은 서두의 인용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으나, 네 기간별 진행 방식과 절차에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

6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ADSND I(1618-1619)*, XXIV: "비록 도르트 총회의 정식 명칭은 '도르트레흐트 전국 총회(National Synod of Dordrecht)'이지만, 그것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국 총회(a national synod with an international character)였다. 8개의 개혁파 교회를 가진 해외 지역에서 26명의 국제 총대들이 참석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7 도르트 총회의 기간별 간략한 소개를 포함한 도르트 총회의 전체적 개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ADSND I(1618-1619)*, XV-XXXII. 헤르만 셀더하위스, 『도르트 신경: 은혜의 신학 그리고 목회』, 이남규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9), 19-51.

다.

그러므로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나타난 단서를 중심으로 오퍼레이셔널 주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추론해가는 과정에 앞서, 도르트 총회의 전반적인 진행 방식과 네 기간별 세부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1. 도르트 총회의 전체적인 회의 진행 절차와 과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총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모여서 오전 회기를 진행하였고, 오후 4시 혹은 6시에 저녁 회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회기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토요일에 모임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총회의 본 안건인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은 당시 일반인들에게조차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제였기에⁹, 총회가 공개회의로 진행된 때엔 많은 청중이 회의를 참관하였으나,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거나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비공개로 진행

8 총회는 전체 여섯 달 반의 기간 중 13번 토요일에 모였고, 15번의 회기(1618년 12월 29일, 1619년 5월 4일에 각각 2회기)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특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총회는 12월 1일 토요일에 모임을 하였는데, 이때는 그다음 주(12월 6일)에 향론파가 도착하기로 예정된 때였다. 그러므로 향론파 도착 이전까지 총회는 중심 회기 이전 회기에서 다루고 있던 다섯 가지의 안건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부득이 토요일에 모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론파와 절차 논쟁을 벌이던 기간에 특히 토요일에 자주 모임을 하였는데, 향론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총회의 진행이 상당히 지체되었기에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자 토요일에도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1619년 1월 14일에 향론파가 총회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하였던 총회가 향론파가 추방된 이후 3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단 한 번도 토요일에 모임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3월 16일 토요일에도 총회는 모임을 하였는데, 이때는 부활절(3월 31일) 이전까지 총회의 결의안을 제출하라는 네덜란드 의회의 요청 때문에 그때까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임을 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4월 27일과 5월 4일 토요일에 모인 이유는 5월 6일 도르트레흐트 대교회(Grote Kerk)에서 예정된 도르트 신경 공표식 이전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사안들, 즉 마코비우스(Johannes Maccovius, 1588-1644) 사례와 볼스투우스(Conrad Vorstius, 1569-1622) 사례를 끝내기 위해 모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총회는 특별한 경우 토요일에도 모임을 하였다.

9 김지훈, 『고마루스』(서울:익투스, 2021), 285: “도르트 총회는 단순히 학자들 간의 교리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논쟁이었다. 이로 인해서 학자들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되어 청중 참석을 제한하였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미리 발표되었다.¹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80번의 회기 중 하루에 한 차례만 회기를 진행하였던 날이 78일이었고,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번의 회기를 진행한 날이 51일, 102번의 회기였으며, 이중 토요일에도 13번, 총 15번의 회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회가 하루에 한 번만 모임을 하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 하루에 한 번만 모임을 한 것으로 기록된 날 중 절반에 가까운 38일이 세 번째 기간인 항론평의 주장에 대한 응답서 작성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간에도 총회의 총대들은 하루에 두 번씩 모임을 하였다. 다만 오전 시간은 각 총대단에 할애하여 도르트 신경 초안 작성을 위한 항목별 견해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기에 이 모임이 정식 회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공식적으로 셈이 되는 회기는 하루에 한 번뿐일지라도, 총회는 총대단 모임과 전체 모임의 두 차례 모임을 한 것이다. 결국 총회는 그것이 총대단 개별적이든, 총회 전체적이든, 그래서 공식 회기로 인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루에 두 차례 모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크리스마스 기간(12월 22~26일)과 도르트 신경 초안 위원회가 도르트 신경 초안 작성을 위해 활동을 한 약 3주간의 기간(1619년 3월 26일~4월 15일)은 휴회하였다. 도르트 신경은 5월 6일에 도르트레흐트 대교회(Grote Kerk)에서 공표되었고, 5월 9일 만찬과 함께 제154차 회기를 끝으로 해외 총대단이 해산된 이후 그다음 주(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회는 네덜란드

10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34r: "Debent tantum membra convenire synodi non auditores. Est enim actio privata";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62r: "Cras non habebitur conventus privatus";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74v: "Cras hora nona habebitur conventus privatus. Die Veneris hora quarta publicus." 시벨리우스 일지에서의 인용은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될 것이다. 여기서 f.는 folio의 약자이며, 여러 장의 folio(folios)를 인용할 경우, ff.로 표시한다. 그리고 숫자 다음에 사용된 r과 v는 한 장의 folio의 전면과 후면, 혹은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을 표기하는 알파벳이다.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을 연속되는 페이지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현대의 일반적인 페이지 표기 방식과 달리, 2절 판에서는 종이 한 장의 전면과 후면이 모두 같은 페이지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기 위해 r과 v라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인데, r(recto)은 전면, 혹은 오른쪽 면을 의미하고, v(verso)는 후면 혹은 왼쪽 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f.13r은 13번째 folio의 전면, 혹은 오른쪽 면을 의미하고, f.119v는 119번째 folio의 후면, 혹은 왼쪽 면을 의미한다.

소환장이 발송되었다. 총회는 항론파가 도착하기 이전까지 먼저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다루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전술한 비 교리적인 다섯 가지 안건이다.

이러한 안건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총회는 두 가지 방면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시벨리우스의 일지는 이 기간의 총회 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총회에 하나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하나의 새로운 안건이 총회에 제안되면, 공식 회기에서 그 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식 회기가 끝난 이후에는 총대들끼리 사적으로 모여 그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총대 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적으로 도출이 된 합의는 총대들 공동의 이름으로 문서나 구두,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총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총대 중 합의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그들 자신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표결로 결의가 이루어졌다.¹³

이 인용문에서 중심 회기 이전 회기 기간의 총회의 진행 절차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 총회는 약 3주간, 정확하게 말하면 제6차 회기부터 21차 회기까지 총 16번의 회기에서 다섯 가지의 안건을 모두 다루어야 했다.¹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부족했고, 이 부족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회는 두 가지 방면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13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13v: "cum quaestio in synodo ventilanda proponitur, de qua utrinque disputatur, primum re publice proposita, explanata, et discussa, privatim sive extra locum conventus collegialiter de ea plenius deliberetur, ut omnes collegae quoad fieri potest inter se consentiant, unamque sententiam communi nomine sive scripto sive viva voce, sive modo utroque in synodo proferant."

14 총회의 소환장에 따르면 소환된 항론파 지도자들은 12월 5일, 제21차 회기 때 총회에 참석해야 했다. 마키다 요시카즈, 이종진 역, 『도르트 총회』, 58-59: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전술한 것처럼 12월 5일 저녁 도르트에 도착했다. 다음날 6일에는 회의장에 에피스코피우스 외에 12명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소환장의 출두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하루가 늦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총대들은 제20차 회기까지, 단 15번의 회기 동안 다섯 가지의 문제를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식 회기로 모여서 각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그다음 회기 때 다룰 안건을 총대단별로 논의하고 그에 대한 견해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공식 회기 이후의 시간에 총대들은 사적으로 모여서 이전 공식 회기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여기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번 공식 회기에 제출하였고, 총회는 이렇게 총대 간 사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공적으로 결의하였다.

이 기간에 하루에 한 번만 공식 회기로 인정되는 날이 17일이고, 두 번 공식 회기로 인정되는 날이 이틀뿐인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총회는 오전에만 공식 회기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각 총대단 모임으로, 그리고 총대별 사적 모임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절차를 정하고 그렇게 시행한 것이다.

(2) 항론파와의 절차적 논쟁(Procedural Debates with the Remonstrants) 기간

총회가 제4차 회기 때 결의하고 소환장을 발송한 이후 약 3주 후인 12월 6일에 항론파는 총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4일까지 약 5주간 총회는 항론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기간을 항론파와의 절차적 논쟁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기간에 총회와 항론파는 총회의 본 안건인 항론파의 다섯 가지 항목을 다루기보다는 어떤 방식과 절차로 총회를 진행할 것인가로 반복되는 논쟁을 벌였다. 항론파는 총회의 합법성과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은 총회에 동등한 입장으로 출석하였기에 총회가 자신들의 견해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등한 집단 간 이견을 조율하는 협의회(Conference)의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발송된 소환장의 특정 문구를 빌미로 삼아 자신들에게 개혁파의 견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과 유기 교리를 자유롭게, 심지어 선택교리보다 먼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게다가 양심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들이 조금

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총회의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¹⁵

총회는 더 이상 그들로 인해 총회가 지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총회는 네덜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항론파의 견해는 그들의 입이 아닌 그들의 저술로부터 확인하기로 결의하고 항론파를 총회에서 추방하였는데, 그것이 1619년 1월 14일, 제57차 회기 때였다.¹⁶

이 기간에 총회는 제22차 회기로부터 57차 회기까지 총 36번의 회기를 하였다. 그중 하루에 한 번 회기를 진행한 것이 19일이고, 2번 회기를 진행한 것이 8일, 총 16회기였다. 그리고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인 1월 14일에도 하루에 두 번 회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날 오전에 항론파가 총회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서 이날 오전 회기인 제57차 회기까지 합하여 총회는 이 기간에 총 36번의 회기를 하였다.

이 기간에 총회는 그들의 예상과 다른 항론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총회의 진행에 애를 먹었다. 게다가 총회는 총회대로 항론파의 요구에 대한 총회의 중지(衆智)를 모아야 했고, 항론파는 항론파대로 총회와 절차 논쟁을 벌이면서 총회가 요구하는 항론파 자신들의 다섯 개 항목에 대한 견해서(Sententia), 설명서(Declaratio), 그리고 변론서(Defensio)와 그들이 개정을 요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과 벨기에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므로 총회와 항론파 모두 하루에 두 차례의 공식 회기를 갖는 것은 시간상으로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체 기간의 2/3에 해당하는 19일을 하루에 한 번만 공식 회기로 모인 것이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를 거론하며 총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15 항론파와의 절차적 논쟁 회기 기간에 항론파와 도르트 총회가 벌였던 논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Donald W. Sinnema, "The issue of reprobation at the Synod of Dordt (1618-19) in light of the history of this doctrine," (Ph.D.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Canada, 1985), 214-263; 홍주현, "도르트 총회, 공정과 화합의 총회 - 도르트 총회의 개최목적과 신조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3 (2022), 197-201.

16 홍주현, "도르트 총회, 공정과 화합의 총회," 202-203.

일관한 항론파로 말미암아 총회의 진행이 계속 지체되었기에, 이 기간에 총회는 토요일에도 자주 모임을 하였다.¹⁷ 이 기간에 토요일은 총 6번이 있었는데, 그중 5번 모임을 하였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항론파의 방해로 지체된 총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총회는 공개회의로 진행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회의를 지켜볼 수 있게 하였다.¹⁸

(3) 항론파의 주장에 대한 응답서 작성(Preparing a Response to the Remonstrants) 기간

항론파가 총회에서 추방당한 직후인 1월 14일 오후부터 5월 9일까지, 공식 회기로는 제58차 회기부터 154차 회기까지, 총회 전체 회기의 절반이 조금 넘는 97번의 회기가 이 기간에 속한다. 그중 하루에 한 번의 공식 회기를 한 날이 38일이고, 두 번의 공식 회기를 한 날은 29일(총 58회기)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시작인 1월 14일 오후 회기까지 더하여 총 97번의 회기가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에는 모임을 하지 않았다.

항론파가 총회에서 추방되고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입이 아닌 그들의 저서로부터 조사하기로 하였기에, 이제 새롭게 바뀐 상황에 맞는 새로운 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총회는 항론파가 추방된 직후 당일 오후 회기(제58차)에 새로운 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61차 회기 때 새로운 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에 대한 결의하였는데,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회는 각 총대단이 도르트 신경 항목별로 자신들의 견해서(Iudicia)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하나의 통합된 견해를 만드는 방식으로 신경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전에는 각 총대단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여 각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에는 공식 회기로 모여서 항목별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¹⁹ 오전의 각 총대단 모임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17 각주 9를 참고하라.

18 김지훈, 『고마루스』, 285.

19 새로운 회의 진행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endrik Kaajan, “De Pro-Acta der Dordtsche Synode in 1618” (Ph.D. diss,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1914), 52-53;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ADSND 1(1618-1619)*, XXVIII-XXIX;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오후의 공식 회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토론은 주로 신학자나 신학 교수들이 이끌었으나, 다른 총대들에게도 발언할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졌다.

새로운 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제62차 회기부터 총회는 새롭게 논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도르트 신경 작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도르트 신경 첫 번째 항목부터 총대들의 발표와 그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전에는 총대단 별로 모여서 자신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그것을 견해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2월 15일, 제81차 회기까지 이 방식 그대로 논의가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제82차 회기부터 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하던 일에 더하여 항론파가 제출한 문서들²⁰을 살펴봐야 했고, 캄편 사례에 관한 내용도 처리해야 했다.²¹ 그래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공식 회기로 모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러다가 각 총대단의 항목별 견해서 작성이 끝난 직후인 3월 6일, 제101차 회기 때부터는 각 총대단이 작성한 견해서 모두를 일일이 낭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공식 회기로 모였다. 그리고 각 총대단의 견해서 낭독을 마치고, 도르트 신경 작성을 위해 도르트 신경 초안 위원회²²가 활동했던 약 3주간의 기간(3월 26일-4월 15일)에

f.52v; 마키다 요시카즈, 이종전 역, 『도르트 총회』, 63.

- 20 애초에 항론파가 총회에 소환된 목적은 그들의 견해를 **진술하고, 설명하고, 변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총회가 항론파 대표자들에게 발송한 소환장에 이러한 소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ADSND 1(1618-1619)*, eds.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15: “... ut maxime in has causa exercitatos, ad hanc synodum vocare et citare; ut in eadem dictos articulos libere **proponent, explicent et defendant**, quantum possunt et necessarium iudicabunt.”(볼드체는 필자의 것이다) 그런데 항론파는 자신들의 견해를 진술(proponent)하던 와중에 총회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러므로 총회로부터 추방된 이후 항론파는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설명서(declaratio)와 변론서(defensio)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총회는 그들이 설명서와 변론서를 제출하였을 때마다 그것들을 총회에서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 21 캄편 사례에 관해 알기를 원한다면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홍주현,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의 확대경으로서의 ‘캄편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개혁신학』 72 (2021), 10-44.
- 22 도르트 신경 초안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다음을 참고하라. Donald Sinnema, “The drafting of the Canons of Dordt: A preliminary survey of early drafts and related documents” in: Aza Goudriaan and Fred van Lieburg, eds.,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Leiden/Boston:Brill, 2011), 298-306.

총회는 공식적으로 휴회하였다. 그렇게 작성된 도르트 신경의 최종 수정과 도르트 신경 결론 작성, 그리고 마코비우스 사례와 볼스티우스 사례까지 마무리한 후, 총회는 5월 6일, 제153차 회기 때 도르트레흐트 대교회(Grote Kerk)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도르트 신경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5월 9일, 제154차 회기를 끝으로 해외 총대단은 해산하고, 총회의 중심 회기는 마무리되었다.

(4) 중심 회기 이후 회기(Post-Acta Session) 기간

도르트 신경이 공포되고 해외 총대단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후, 총회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네덜란드 교회 내부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치리와 예전에 관한 것,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 등이었다.

이 기간은 5월 13일에서 5월 29일까지, 제154차 회기로부터 마지막 제180차 회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4일을 제외하고는 11일 동안 하루에 두 차례씩 공식 회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포함된 2차례의 토요일에도 모두 공식 회기를 진행하였다.

3. 오퍼레이셔널 주 총대단의 회의 진행 및 의사결정 과정

총회의 전체적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간별로 조금씩 상이했던 진행 방식과 절차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총회의 진행 방식 및 절차와는 달리,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총대단의 회의의 진행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공식적인 회기와 달리 총대단의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가깝기에 그 진행 과정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몇 가지 자료들이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했으리라는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이러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그 자료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추론의 단서가 되는지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 추론에 따라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 혹은 그것을 일반화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시벨리우스가 속해 있던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하였을까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벨리우스 이외의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일원이 작성한 자료 중 유일하게 이용이 가능한 향론파의 견해서 첫 번째 항목에 관한 보겔리우스(Hieronymus Vogellius, 1579-1654)의 개인 견해서도 관련된 자료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1)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단서들

시벨리우스의 일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총회의 회기별 기록이다. 시벨리우스는 심한 열병으로 인해 중심 회기 이후 회기 초반에 데이번터(Deventer)시로 돌아갔기에, 그의 일지에는 중심 회기 이후 회기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²³ 그러나 마지막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기간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²⁴을 그의 일지는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총회의 공식 회의록에 대한 충실한 보조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들과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들 및 기타 견해들에 대한 기록이다. 시벨리우스는 총회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안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일지 곳곳에 기록해두었다. 총 22개의 개인 견해²⁵가 일지에

23 그러나 시벨리우스는 중심 회기 이후 회기에 해당하는 제156차 회기와 157차 회기에 대한 기록을 그의 일지가 아닌 자서전에 남겨놓았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비록 일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가 중심 회기 이후 회기 기간에 다루어진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벨리우스의 자서전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그가 30여 년간 사역했던 네덜란드 데이번터시 도서관(Athenaeum library)에서 보관 중이다. 그의 자서전은 C. Sibelius, "Historica narratio Caspari Sibelii de curriculo totius vitae et peregrinationis suae 1652"(photocopy)이며, 도서관 홈페이지 <https://athenaeumcollecties.nl/>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4 세 번째 기간까지의 총 154번의 회기 중 8번의 회기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제80차 회기로부터 85차 회기까지, 그리고 제88차 회기와 95차 회기의 기록이다.

25 시벨리우스는 성경 번역(f.16r)에 대해서, 번역의 절차(f.17v)에 대해서, 노예 어린이들의 세례(f.19r&f.22v)에 대해서, 요리문답의 교육에 대한 목회자와 정부 관리의 역할(f.21v)에 대해서, 우트레흐트 향론파의 상태(f.28r)에 대해서, 향론파의 항의(f.29v)에 대해서, 향론파의 견해 진술

포함되어 있고, 이 자료는 시벨리우스의 일지에만 포함된 독특한 자료이다. 또한 시벨리우스는 일부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들도 그의 일지에 기록해두었다. 시벨리우스의 일지에는 17개의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²⁶가 기록되어 있다.

이중 주목해야 할 자료는 두 번째 자료이다. 이 자료들이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공통의 견해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집단 구성원 각각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집단 전체의 공통 견해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둘째로 각자의 구성원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 그중 하나의 견해를 집단 전체의 견해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구성원 한 명에게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견해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시벨리우스 일지에 포함된 두 번째 자료들이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이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으로 그들의 공통 견해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먼저 총대단이 첫 번째 방식으로 공통 견해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와 오퍼레이

방식(f.32r)에 대해서, 캄핀 사례(f.34v)에 대해서, 안건의 수집(f.34v)에 대해서, 크로키우스(Crocus)의 2번째 질문과 3번째 질문(f.46r)에 대해서, 폴리안더의 견해(f.51r)에 대해서, 새로운 회의의 진행 절차(f.51v)에 대해서, 캄핀 사례에 대한 첫 번째 특별위원회 모임(ff.55v-56r)에 대해서, 임무의 배정(f.62v)에 대해서, 도르트 신경의 각 항목에 대한 그의 동의(f.107r-v), 향론파의 대한 총회의 결의(f.109r)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문답 교육(f.119r-v)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일지에 기록하였다.

26 시벨리우스는 성경 번역의 기간과 조건(f.18r)에 대하여, 외경(f.20r)에 대하여, 요리문답 교육(f.22r)에 대하여, 제일란트 총대단이 제출했던 목사 교육에 대한 소견서(f.25v)에 대하여, 인쇄의 오용(f.26v)에 대하여, 향론파가 진술서를 제시하는 방법(f.32r)에 대하여, 향론파의 제1항목에 대한 진술서(f.35r)에 대하여, 캄핀 출신 향론파인 고스위니우스의 거짓말(ff.37v-38r)에 대하여, 총회의 결정의 공정성(f.40r)에 대하여, 제1항목에 대한 보거만의 테제(f.47v)에 대하여, 향론파와의 새로운 진행 절차(f.49v)에 대하여, 보거만이 작성한 도르트 신경 초안(f.94r-v)에 대하여, 위원회 초안의 제1항목과 제2항목(f.98v)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의 결론에 대한 첫 번째 초안(f.107r)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의 결론에 대한 두 번째 초안(f.108v)에 대하여,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f.112v)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스티우스 사례(f.115r-v)에 대하여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이 제시한 견해를 그의 일지에 기록하였다.

설주 총대단의 견해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²⁷ 이는 총대단이 총대들 각자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게 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공통 견해를 작성하였으리라는 것을 추론하게 해준다. 그리고 총대단이 두 번째 방식으로 공통 견해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는 한 문서 안에 그것이 개인 견해였다가 총대단 공통의 견해로 채택되어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거나 삽입된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2)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추론

앞서 말한 두 가지 근거 중 첫 번째 근거는 총회에서 제기된 하나의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가 시벨리우스 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안건에 대한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가 Utrecht OSA²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는 총대단이 총회에 제출할 견해서를 작성할 때 시벨리우스를 포함한 총대들 각자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게 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총대단 공통의 견해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시벨리우스는 그의 일지 f.29v에 총회를 당파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항론평의 항의²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해두었다.³⁰ 그리고 동일한 안건에

27 그러나 이는 같은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와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공통 견해가 모두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서는 당시에 총회에 제출되었으므로, 현재에는 그 대부분이 Utrecht OSA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만이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안건에 대한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와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가 총대 각자의 개인 견해를 수렴, 종합하여 만들었다는 추론에 힘을 실어주며, 이러한 추론은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28 Utrecht OSA(Oud Synodaal Archief)는 과거에 개최되었던 네덜란드 총회들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 보관소를 의미하며, <https://hetutrechtsarchief.nl/>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 중 도르트 총회와 관련된 문서들은 A에서 S까지(J는 제외) 18개의 그룹(Band)으로 분류되어 보존되고 있다.

29 이러한 항론평의 항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nae (1618-1619)*, vol. 2.2, *Early Sessions of the Synod of Do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350-354.

대한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견해가 Utrecht OSA, M, 179에 존재한다.³¹ 그리고 두 번째 근거자료는 노예 어린이들의 세례에 대한 안건이다. 총회는 중심 회기 이전 회기에서 노예 어린이들의 세례 문제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는데, 시벨리우스는 그의 일지 f.22v³²에 이 안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해두었다.³³ 그리고 동일한 안건에 대한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견해가 Utrecht OSA, A.2,1 p에 존재한다.³⁴

게다가 시벨리우스 일지에 기록된 자료 중 어떤 자료들은 그 자료가 처음에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였다가 오퍼레이셜주 총대단 전체를 대변하는 견해로 채택되어 제목과 내용이 수정된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과 단서를 통해 두 번째 방식, 즉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이 때로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를 총대단 전체를 대변하는 견해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다음의 세 개의 자료가 그 근거가 된다.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에 대한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견해(f.18r)

시벨리우스는 그의 일지 f.18r에 네덜란드 국역 성경(Statenvertaling) 번역 안건³⁵에 대한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견해를 기록해두었다.³⁶ 그런데 이 자료

30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29v: “Inter alios deputatos provinciarum placuit illis etiam carpere nos tanquam schismaticos aut schismaticorum fautores. At schismatici non sumus, schismaticis hactenus non facimus. Sumus huic missi muniti autoritate et mandato illustrium Ordinum provinciae Transisulaniae. Nos ergo qui schismatis accusat, eisdem criminis. Quare quoque dominos nostros reos peragat necesse est. Admonitio d. Praesidis fuit iusta et necessaria.”

31 그리고 이 자료는 ADSND 제2.2권에도 포함되어 있다.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10-411.

32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22v. 그런데 f.22v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자료가 시벨리우스의 일지 f.19r에도 별지 형태로 삽입되어 있다. 자료의 상태로 보았을 때 수정된 흔적이 다수 존재하고 일지의 본문에 기록된 f.22v의 자료가 원자료이고, 보다 정돈되고 수정된 흔적이 거의 없는 f.19r에 삽입된 자료가 원자료의 복사본으로 추정된다.

33 ADSND 제2.2권에도 이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163-164.

34 이 자료 역시 ADSND 제2.2권에도 포함되어 있다.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161-162.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료가 원래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였다가 오퍼레이 설주 총대단 공통의 견해로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 단서는 이 견해의 제목이다. 이 견해의 제목은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에 대한 “우리의 견해(Iudicium nostrum),” 즉 오퍼레이설주 총대단의 견해이다. 그런데 라틴어 “nostrum”이 삭제된 단어를 대신하고 있다. (붙임 1 참조) 그리고 삭제된 단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m’으로 시작되는 글자로 보인다. 게다가 삭제된 단어의 마지막에 m이나 n을 표시하는 라틴어 약어표시가 남아 있다.³⁷ (붙임 1 참조) 그러므로 이 삭제된 단어는 라틴어 “meum”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벨리우스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자기 개인의 견해일 때는 “Iudicium meum”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총대단 전체의 견해일 때는 “Iudicium nostrum”이라는 제목을 사용한다. 그렇기에 이 자료는 처음에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Iudicium meum)로 기록된 자료였는데, 나중에 오퍼레이설주 총대단의 견해(Iudicium nostrum)로 채택되어 기존의 제목이었던 meum을 지우고, 그것을 nostrum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단서는 이 자료의 첫 문장이 일인칭 단수 동사인 “Puto”로 시작한다는

35 총회는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여러 안건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이전 번역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어로부터 새롭게 번역할 것인지, 번역의 방식은 어떠한지, 외경도 번역하여 국역 성경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만약 포함한다면 외경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와 같은 안건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안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시벨리우스 일지 곳곳에 존재한다. 그중 시벨리우스 일지 f.18r에 있는 이 견해는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에 대한 여러 안건 중 번역 기간, 번역 과정, 그리고 조건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견해이다.

36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18r: “Iudicium nostrum: Puto certum tempus ipsis non praefigendum, sed hoc totum illorum fidei et pietati committendum esse, ita tamen ut absoluto quodam libro singulis tremestribus exemplar illius transmittant tam ad Ordines illustrissimos quam ad singularum aut deputatos eorundem, ut Ordinibus de fructu sumptuum et impensorum ac totius ecclesiae de diligentia constet interpretum. Fiat autem initium versionis post trimestris spatium a synodo hac finita. Optamus tamen ut quadriennio spatio absolvatur.”

37 이는 라틴어 약어 표시(abbreviation)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 한 단어의 끝이 m 혹은 n으로 끝나면 대시(-) 표시를 마지막 음절 위에 붙인다. 붙임 1의 두 번째 줄 “illorum”의 약어를 참조하라.

사실이다. 이 일인칭 단수 동사는 이 견해가 원래는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는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은 일인칭 복수 동사인 “Optamus”로 시작한다. 이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가 총대단 전체의 견해로 채택이 된 이후 삽입된 문장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다른 기록들과 구분하기 위해 왼쪽과 아래쪽에 그어놓은 구분 선이 이를 증명한다. (붙임 1 참조) 이 구분 선에 포함되는 문장은 Optamus로 시작하는 문장 이전까지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벨리우스가 개인 견해로 이 자료를 기록하였을 때는 Optamus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시벨리우스의 견해가 총대단 전체 견해로 채택된 이후 이 글이 총대단 전체를 대변하는 글임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Optamus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을 삽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에 관한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는 처음에는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였는데, 그것이 총대단 회의 과정에서 다른 총대들의 견해와도 일치하여 총대단이 그의 견해를 총대단 전체를 대변하는 견해로 채택했음이 틀림없다.

요리문답 교육(설교)에 관하여(f.22r & f.119r-v)

첫 번째 자료도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이 두 번째 방식으로 그들의 공통 견해를 작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총대단의 견해가 두 번째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시벨리우스가 그의 일지 f.22r 본문에 전체 중 일부 항목만을 기록해 놓고, 나머지 항목을 포함한 전체 견해를 첨부 형태로 f.119r-v에 삽입해 놓은 요리문답 교육(설교)과 관련된 자료이다.

요리문답 교육 및 설교와 관련된 안건은 중심 회기 이전 회기 때 다루어진 다섯 가지의 안건 중 하나였는데, 시벨리우스는 이 안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즉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를 그의 일지 f.22r 첫 부분 본문 상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f.22r 본문 상에는 견해를 구성하는 전체 6개의 소항목 중

1번과 2번 항목만 기재한 채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Reliqua Vide in annexa pagina”라고 기록해두었다. 나머지는 붙임 형태로 삽입된 자료를 참고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f.22r에 기록된 1번과 2번 항목을 포함한 견해의 전체 내용이 구별된 종이에 기록되어 f.119r-v에 덧붙여진 채로 삽입되어 있다.³⁸

그런데 f.119r-v에 삽입된 이 자료의 제목은 “나의 견해(Iudicium meum)”이다. 정리하자면 시벨리우스는 원래 자신의 견해였던 자료가 총대단 전체를 대변하는 견해로 채택이 되자 f.22r 본문에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기록하였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전체 내용을 f.22r 본문에 다 기록하지 못하고 기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라고 기록해 놓고, 자신이 처음 작성했던 “나의 견해”라는 제목을 사용한 자료를 덧붙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가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을 대표하는 견해로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여 ADSND 제2.2권에 “요리문답 교육과 관련된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로 이 자료를 소개한 피에릭 힐데브란트(Pierrick Hildebrand)도 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요리문답 교육과 관련된 이 자료의 초안은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총대 중 한 명인 카스파르 시벨리우스(그의 일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의 개인 견해로 먼저 작성되었던)에 의해 준비되었다.”³⁹

그런데 시벨리우스 일지에 기록된 이 자료를 Utrecht OSA A.1 1 p와 ADSND 제2.2권에 포함된 자료, 즉 총대단이 총회에 실제로 제출한 견해서와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이 원래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였던 자료를 총대단을 대변하는 공통 견해로 받아들인 후, 마지막

38 f.119r-v 자료에는 f.22r 자료에 기록된 1번과 2번 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6가지 소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1번 항목에서 5번 항목까지 f.119r에, 그리고 마지막 6번 항목이 f.119v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f.119r에 보면 5번 항목이 기록된 다음 또 다른 5번 항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5번 항목은 구분 선으로 앞의 내용과 구분 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요리문답 교육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행정 관료가 주일이 잘 지켜지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이다. 요리문답 교육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편집 당시 실수로 같이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119r-v.

39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119.

제출 과정에서 그 일부를 수정하고 내용을 덧붙여 총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래서 힐데브란트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처음 다섯 가지 항목은 시벨리우스의 초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벨리우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나머지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첨부되었다.”⁴⁰

항론파의 견해 진술 방식에 대하여(f.32r)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론파가 소환되어 총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항의서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견해서, 설명서, 변론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기에 신앙고백서 수정 요구에 대한 견해서, 그리고 기타 총회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견해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항론파는 자신들의 견해를 긍정(positive)의 방식이 아닌 부정(negative)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은 항론파가 그들의 견해서를 작성할 때 부정의 방식이 아니라 긍정의 방식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회 역시 이와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항론파에 그들의 견해를 부정의 방식이 아닌 긍정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항론파의 견해 진술 방식에 관한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견해는 시벨리우스의 일지 f.32r 본문 상에 기록되어 있다.⁴¹ 그런데 시벨리우스는 이 견해를

40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119. 여기서 나머지 내용을 첨부한 다른 누군가(another hand)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필자의 논문 부지도 교수였던 에릭 드 부어(Erik de Boer) 교수는 오퍼레이셜주 총대단의 또 다른 일원이었던 히에로니무스 보켈리우스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의 논문에 대한 2020년 10월 6일 논평 중)

41 “Sententia mea et collegarum: Iniungatur illis, ut sententiam suam proponant affirmative omitta negativa. Hoc ni fiat in infinitum actio protrahethr, atque excidemus scopo citationis illorum. Deinde quia citati sunt un communem suam sententiam proponant ac quantum possunt defendent, agant quoque coniuncta opera. Quod is tamen ita visum fuerit Tuae Reverentiae, posset aliquando singulos pro re nata id exigente ipsa necessitate rei interrogare de iis, in quibus videntur dissentire inter se. Petimus insuper, ne semper a domino Episcopo inquiratur de illorum sententia, ne upsum quem praesidem coetus illorum videamur constituere.”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32r.

“나와 우리의 견해(Sententia mea et collegarum)”로 소개한다. 그런데 “mea” 옆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 (붙임 2 참조) 그리고 “et collegarum”이 적혀 있다. 처음에는 “Sententia mea”로만 기록된 시벨리우스 개인의 견해였던 것이 총대단 전체의 견해로 채택되고 난 후, “et collegarum”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마침표에 대한 고려 없이도 “나와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 자체가 이 자료가 처음에는 시벨리우스의 개인 견해였다가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로 채택되었음을 신빙성 있게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3) 보겔리우스의 견해서

도르트 총회에 파견된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은 목사 총대 4명, 장로 총대 2명으로 구성되었다.⁴² 그런데 이들 중 시벨리우스처럼 개인 기록을 남긴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총대들의 견해도 시벨리우스의 견해처럼 총대단 전체를 대표하는 견해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시벨리우스의 예에서처럼 신빙성 있게 추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벨리우스 이외의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일원이 남긴 자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항론파의 견해서(Sententia)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보겔리우스의 견해이다. 이 보겔리우스의 개인 견해서는 1618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고, 현재 그 원본이 Utrecht OSA에 보관되어 있으며,⁴³ ADSND 제2.2권에도 포함되어 있다.⁴⁴

여기서 보겔리우스는 먼저 항론파가 하나님의 선택을 다룬 그들의 첫 번째 항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⁴⁵ 또한 긍정의

42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목사 총대 4명은 카스파르 시벨리우스, 헤르마누스 위페르딩(Hermannus Wiferding), 히에로니무스 보겔리우스, 요하네스 랑가우스(Johannes Langius)이며, 장로 총대 2명은 얀 판 데르 라우위크(Jan van der Lauwic)와 빌렘 판 브로크하우젠 도르네(Willem van Broeckhuisen Doerne)이다.

43 Utrecht OSA, 5, 587.

44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55-457.

45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55: “Remonstrantes in suo scripto nec sententiam eorum Remonstrantium, qui in Collatione Hagiensi disputarunt, nec suam pro ut debuerunt plane ac plene proposuerunt, quoad Primum de electione Articulum”;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할 여러 항목이 부정의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고,⁴⁶ 그들의 견해가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⁴⁷ 그렇기에 항론파는 그들의 불분명한 표현들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항론파의 견해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견해는 시벨리우스의 일지 f.35r에 기록되어 있다.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은 항론파의 견해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항론파의 견해서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정의(定義)가 빠져 있고, 둘째, 항론파는 핵심 쟁점 세 가지 항목⁴⁹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진술해야 하며, 셋째, 그들의 견해서는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작성되었기에 일곱 가지 항목⁵⁰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견해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 ADSND(1618-1619)*, vol. 2.2, 456: "Nec etiam suam proposuerunt plane et plene."
- 46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56: "Quid illi ipsi sentiant referunt thesibus negativis: prima, secunda, tertia, quarta, sexta, decima, quae quia non proponunt sententiam ipsorum Remonstrantium a debito proposito alienae sunt."
- 47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56: "Thesis septima eitma ambigue proponitur";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56: "Tertio, et consideratione fidei et perseverantiae in ea obscure adfertur."
- 48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J. Selderhuis, eds., *ADSND(1618-1619)*, vol. 2.2, 457: "De istis igitur vel ambiguitatibus explicandis vel defectibus supplendis interrogatoria instituenda."
- 49 핵심 쟁점 세 가지 항목은 1)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지 않고 조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2)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있는 자질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3) 믿음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선택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항론파의 견해의 핵심이었으며,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은 이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 50 일곱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선택하실 때, 그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작성하신 것은 없는지. 2)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인지. 3) 믿음은 선택과 그것의 실행의 작정에서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되는지. 4)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들 모두는 효과적으로 그에게로 부름을 받는지. 5)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 어떤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제외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지. 6)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그들 자신의 멸망에 종속된 효과적인 수단을 약용할 수 있는지. 7) 그들이 믿음이 조건이라고 주장할 때, 유아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부모들의 선택으로 인해 특별한 유아들만 구별되는 것인지.

합론과의 견해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보젤리우스의 개인 견해와 총대단의 견해를 비교해보면,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이 두 번째 방식과 같이 보젤리우스의 견해를 그대로 총대단의 견해로 채택한 것 같지는 않다. 견해서의 작성 형식도 다르거니와 보젤리우스의 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젤리우스와 총대단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대단은 보젤리우스를 포함한 다른 총대들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 이 안건에 대한 총대단 공통의 견해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보면 보젤리우스가 작성한 견해서를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퍼레이셔널 총대단의 견해가 기록된 f.35r 마지막 줄에 시벨리우스는 “총대들은 보젤리우스가 살펴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였다.”⁵¹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보젤리우스가 살펴본 다른 것들”은 보젤리우스의 개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시벨리우스가 예외적으로 보젤리우스의 견해를 총대들이 살펴보고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보젤리우스의 견해가 이 안건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총대단은 비록 보젤리우스의 견해를 자신들의 공통 견해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견해를 중심으로 다른 총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총대단 공통의 견해를 작성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III. 결론

장장 6개월 반 동안 진행되었던 도르트 총회는 네 개의 기간으로 구분될 정도로 총회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총회는 그 상황에 맞는 회의의 진행 절차와 방식을 새롭게 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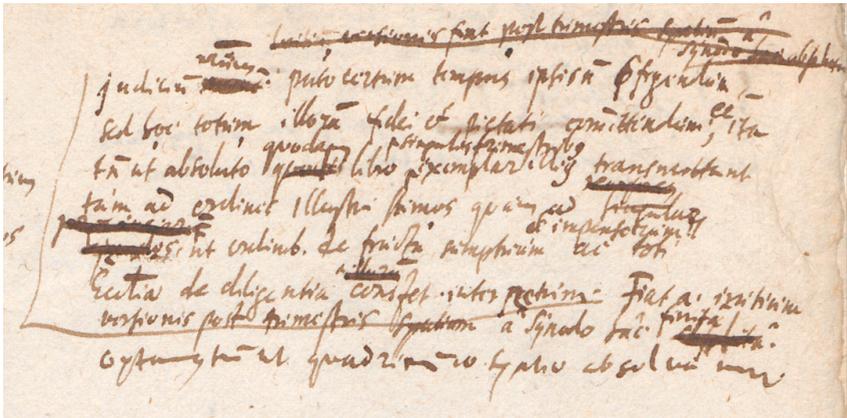
51 Sibelius,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f.35r: “Caeterum probant deputati supradicti et singula illa, quae ipsorum Reverendus collega d. Vogelius notavit.”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들의 과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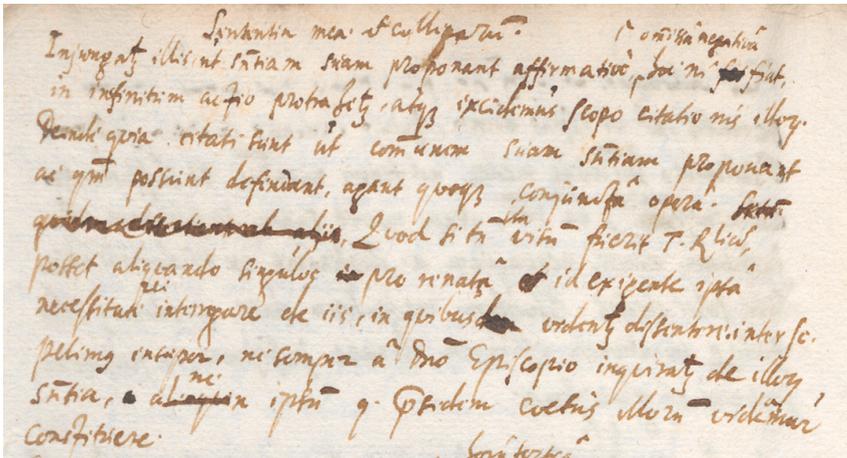
또한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각 총대단이 견해서를 작성한 방식도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결정적인 몇 가지 단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사실 각 총대단이나 전체 총대단 중 일부, 아니면 최소한 단 하나의 총대단만이라도 자신들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총회에 제출할 견해서를 작성하였는가를 간략하게나마 기록해 두었다면 굳이 이 글이 작성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총대단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그들의 견해를 작성하였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그 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비록 시벨리우스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자기 개인 일지에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그것들을 통해 이 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퍼레이셔널주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기에 이 글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도르트 총회에 관한 일차 자료들이 아직도 발굴되는 중이기에,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총대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가 언젠가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도된 글이라는 점에서 이 글은 충분히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는 글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부족함을 메워줄 새로운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그러한 연구의 마중물로서 이 글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붙임 1: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네덜란드 국역 성경 번역에 대한
오퍼레이설주 총대단의 견해〉



〈붙임 2: 시벨리우스의 일지에 포함된 항론파의 견해 진술 방식 대한 시벨리우스
개인파 오퍼레이설주 총대단의 견해〉

[참고문헌]

1차 문헌

OSA Utrecht Oud Synodaal Archief, Utrecht Archief, Utrecht

Sibelius, Caspar. “Annotationes ad Synodum Dordracenam: bundel aantekeningen in het Latijn en Nederlands betreffende de Nationale Synode te Dordrecht, opgesteld en verzameld door Caspar Sibelius, predikant te Deventer en afgevaardigde van de Overijsselse Synode te Vollenhove naar de Nationale Synode; met bijdragen van anderen over de gevoerde discussies, met name over de Canones, de toespraken van de geciteerde Remonstranten, uitspraken van verschillende deputaten over de Remonstrantse standpunten enz.” MS 1113 (photocopy). Stadsarchief of Dordrecht, Dordrecht.

_____. *Historica narratio Caspari Sibellii de curriculo totius vitae et peregrinationis suæ 1652* (photocopy). Deventer: Stads- and Athenaeum Bibliotheek.

Sinnema, Donald, Moser, Christian, and Selderhuis, Herman J. eds., *Acta en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nae (1618-1619)*, vol.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_____. *Acta en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nae (1618-1619)*, vol. 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2차문헌

Kaajan, Hendrik. “De Pro-Acta der Dordtsche Synode in 1618.” Ph.D. diss.,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1914.

Sinnema, W. Donald. “The drafting of the Canons of Dordt.” In Goudriaan, Aza and Lieburg, Fred van, eds.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291-311. Leiden/Boston: Brill, 2011.

_____. “The issue of reprobation at the Synod of Dordt (1618-19) in light of the history of this doctrine.” Ph.D. diss., Canada: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1985.

김지훈. 『고마루스』. 서울: 익투스, 2021.

마키다 요시카즈. *ドクトレイト信仰規準研究*. 이종전 역. 『도르트 총회: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다』. 서울: 아벨서원, 2019.

셀더하위스, 헤르만. 『도르트 신경: 은혜의 신학 그리고 목회』. 이남규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9.

_____.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김병훈 외 4명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8.

홍주현. “도르트 총회, 공정과 화합의 총회 - 도르트 총회의 개최목적과 신조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3 (2022), 184-223.

_____. “도르트 총회 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시벨리우스의 일지.” 『개혁논총』 56 (2021), 239-274.

_____.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의 확대경으로서의 ‘캡턴 사레’에 관한 연구.” 『한국개혁신학』 72 (2021), 10-44.

[Abstract]**The Procedure of Making Common Judgment of the Overijssel Delegation : Based on Clues Included in the Journal of Caspar Sibelius**

Joo Hyun Hong

(Saeeden Church, Research Pastor, Historical Theology)

The Synod of Dordt encountered various situations which resulted in the division of four periods, and applied proper procedure to each period according to the situations. However it was various, the procedure of the Synod was very obvious due to the official Acta of the Synod, and other personal documents written by some delegates during the Synod. But the procedure of making common judgment of each delegation has never known, which produced all judgments that were basis of all resolutions of the Synod. Therefore, there is no other way except inferring the procedure. Fortunately, some materials which have been preserved in the journal of Caspar Sibelius offer the important clues to infer it. There are two kinds of materials in the journal of Sibelius: one is the record of each session of the Synod, and the other is personal judgments of Sibelius himself and the judgments of the Overijssel delegation. The latter can be the clues. Namely, the existence of both documents of his personal judgment and of the Overijssel delegation on the same topic guarantees the inference that the Overijssel delegation would make their common judgment by synthesizing judgments of each delegate. Furthermore, some of judgments in Sibelius journal shows shift of title and contents

from his personal judgment to the common judgment of the Overijssel delegation. This shift makes it possible to infer that the delegation sometimes chose the personal judgment of Sibelius or of any other delegate as their common judgment.

Key Words: the Synod of Dort, the Canons of Dort, the procedure of the Synod of Dort, the inner procedure of each delegation, the Journal of Sibelius, Arminian controversy